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위치는 제 홈스테이에서 20~25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었고 환승을 해서 가야하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규모는 제 생각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깔끔하고 좋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서 한 번에 다양한 문화를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p>
수업	<p>주로 숙어, 캐나다의 문화, 발표를 하는 법을 배우고 발표하기, 토론하는 법을 배우고 토론해보기 등을 수업내용으로 하며 같은 반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유도해줍니다. 거의 교수님이 주제를 꺼내주시면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경험을 말하는 방법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따로 분반은 하지 않았고, 같이 갔던 우리학교 학생 15명이 다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과제는 하루에 1~2개씩 내주시는데 매우 간단한 숙제입니다. 저널을 써오거나 홈스테이 가족들에게 정해주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오는 숙제도 있었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Activity로는 컬링, 스노우 슈잉, 박물관, 아쿠아리움 등이 있는데 특히 스노우 슈잉할 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겔옷, 모자(눈이 많이 내려서), 방수가 되는 부츠가 있으면 좋습니다. 빌리는 방법도 있지만 신발만 빌려도 \$8 CAD가 지출되고 겔옷이나 외에 것들은 더 비쌉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일주일에 5~6일은 비가 내리므로 우산은 필수입니다. 조금씩 자주 오는 편이고 많이 오는 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한국보다 따뜻하고 춥다는 느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저는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인종차별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다만, 상점들이 오후 8~9시면 문을 거의 닫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p> <p>저는 일단 전반적으로 제 홈스테이에 대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시설, 분위기, 규칙 등 너무 좋고 잘해주셔서 3주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대부분 통금시간이 있고 식사시간은 지키는 것이 좋지만 지키지 못해도 음식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점이나 필요한 것들은 말하면 바로 해주십니다. 5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모두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바쁘십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놓으시면 좋을 것입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o) 기타()</p> <p>점심은 홈스테이에서 항상 준비를 해주셔서 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의 경우는 저는 3주동안 2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식했습니다. 절대 홈스테이의 밥이 입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밥 같은 경우도 만약 입에 맞지 않으면 홈스테이에게 말을 하면 바꿔주실 것입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교통은 매우 편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만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첫 날에 도착하셔서 홈스테이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구글맵을 이용하시면 너무 잘 나와있어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구글맵을 이용했습니다. 통학 방법은 BUS 아니면 Sky train(우리나라의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각자 집의 위치에 따라 환승하는 사람, 걸어오는 사람 등 다양했습니다. 교통카드는 도착하자마자 학교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1,372,900+33,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220,000	가족들 선물만 샀습니다.
식비	500,000	많이 먹은 편입니다.
합계	2,125,9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날씨가 우리나라보다는 춥지 않다는 사실, 비가 자주 온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USIM칩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은 미리 공부해오 시면 편하고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음식들을 미리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외식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서 느낀 점은 비싸다고 맛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식당은 찾으면 많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점은 tax와 tip이 별도이므로 항상 적힌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거의 뒷자리가 아니면 서있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좌석은 노약자, 휠체어, 짐을 들고 계신 분 등에게 양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두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줄을 서 있을 때에도 항상 먼저 비켜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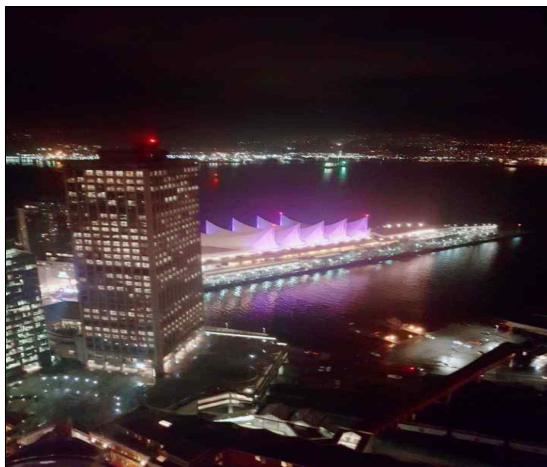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젓가락을 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거의 포크와 손가락으로만 식사를 계속하다보니 불편한 점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 가족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 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모든 면에서 만족했습니다. 3주라는 시간은 짧게 느끼면 충분히 짧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해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가봐야 할 곳은 모두 다 가보았고 음식도 유명하다는 곳, 먹고 싶었던 것들 다 먹어 보았습니다. 3주라는 기간에 영어실력을 향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영어 공부만 아니라 이 외에도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이나마 아쉬웠던 점은 수업을 다양한 학생들과 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같이 간 15명의 순천향대 학생들끼리만 수업을 들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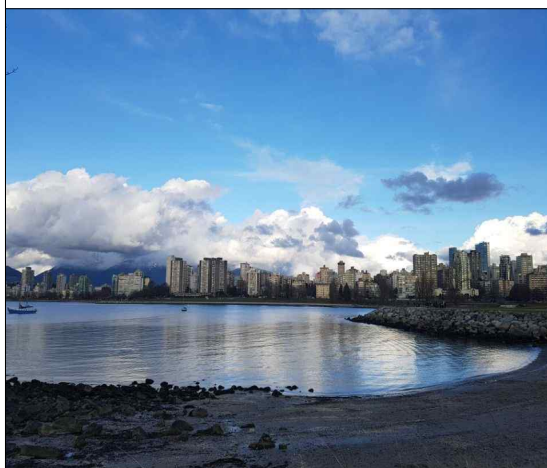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이너하버타워에서 야경+식사



스탠리 파크



M.O.V 앞의 해변



컬링



홈스테이



스노우 슈잉